



**한일 FTA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한일 FTA 체결을 위한 과제
- 한국의 시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일본팀장 김양희

2011. 2. 25



목차

- ▣ 1. 한일 FTA협상의 중단 배경
- ▣ 2. 협상중단 이후 양국 환경 변화
- ▣ 3. 한일 FTA 체결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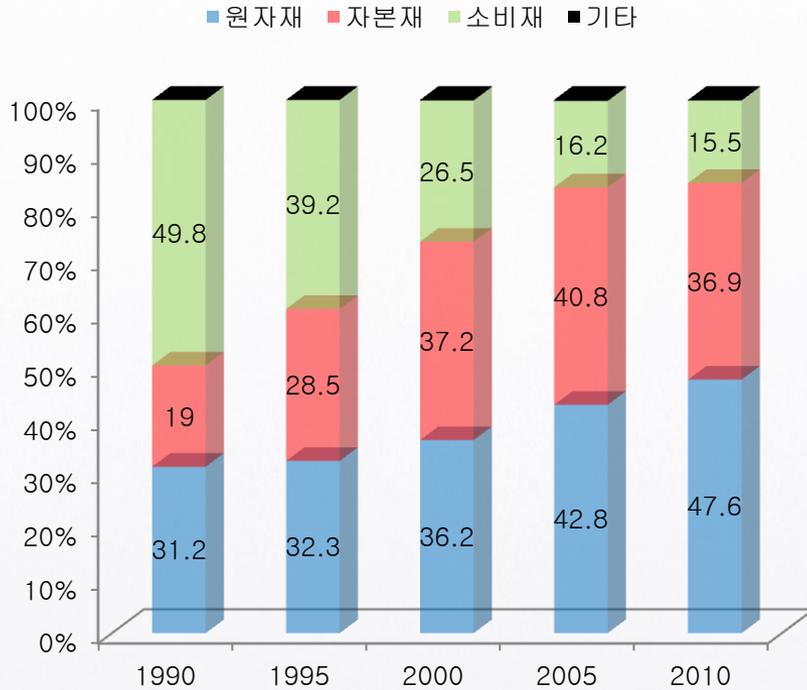
한일 FTA 추진 경위

- 1998.11 한일 양국 통상장관,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합의
- 1998.12 - 2000.4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간 공동연구
- 2002.7.9 - 2003.10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 2003.12.22 - 2004.11.3 한·일 FTA 협상 (제1차-제6차)
- 2008.6.25 - 2009.12.21 한·일 FTA 협상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1차-제4차)
- 2010.9.16 제1차 한·일 FTA 협상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국장급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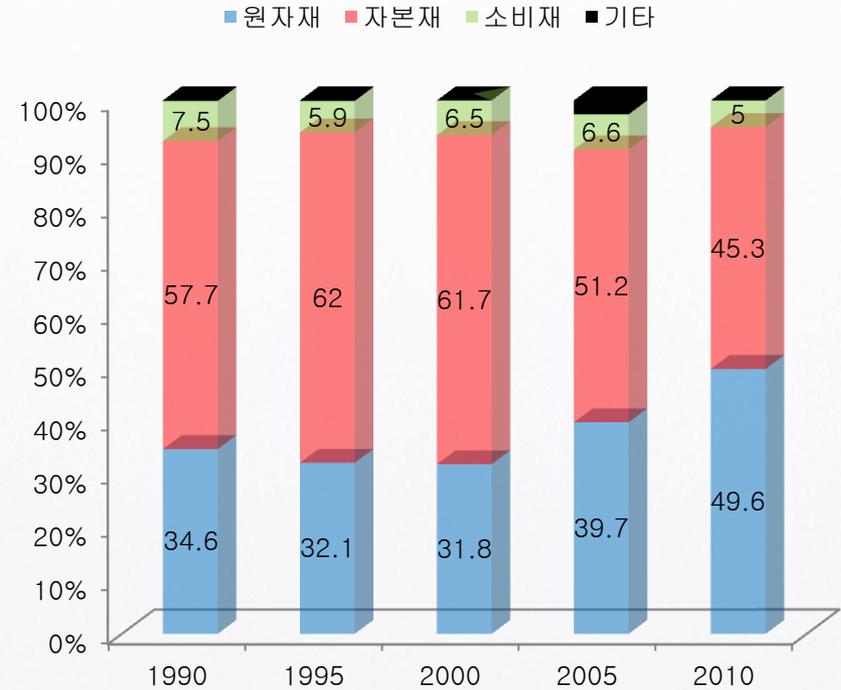
한국측

- 경제적 측면: 대일 제조품 교역의 구조적 특성: 수출 < 수입(소비재 < 중간재)
 - 일본은 핵심 중간재의 세계적인 생산 거점: 한일FTA에 따른 수입증가 우려
 - 일본시장 특성: 低관세(高비관세장벽?)로 한일 FTA의 수출증대효과 기대곤란
 - 기술강국 일본에 대한 두려움 - 이를 만회코자 기술 및 산업협력 요구
-
- 정책적 측면: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중시하는 한국의 FTA 정책 기조
 -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해 수출실적 양호한 거대경제와의 FTA 우선시
 - 지금까지 제조업이 찬성한 FTA만 체결 가능했음.
 - 수출보다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KJFTA에 대한 대국민 설득 곤란
-
- 인식적 측면: 일본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상호 신뢰 부족

한국의 대일수출의 성질별 구성 추이(%)



한국의 대일수입의 성질별 구성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 과거 20년간 대일수입품목은 중간재에 집중, 대일수출품목은 소비재에서 중간재로 크게 변화
- 2000년 이후 양국의 중간재 교역 중에서도 원자재의 비중 증가추세
- ☞ 일본의 기술우위 여전하나 한국의 기술추격이 일정 정도 성과를 도출했음을 의미

일본과 한국의 FTA 정책 비교

	일본의 FTA 정책		한국의 FTA 정책 2003년 FTA 로드맵
	2004년 기본방침	2010년 기본방침	
목표	상호경제관계 강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높은 수준의 FTA 추진과 국내개혁 병행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선진통상국가 실현)
주요 대상	동아시아 중시 (특히 ASEAN)	TPP, EU, 중국 등 거대·선진경제권 중시	미국, EU, 중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 중시
포괄 범위	상품무역 위주 (선택적·탄력적)	TPP, EU와는 포괄적 FTA	선진경제권과는 포괄적으로 추진
개방 수준	제조업: 높음 1차산업: 중간	전 산업에서 높은 수준	선진경제권과는 높은 수 준으로 추진

자료: 김양희 (2010),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일본의 「포괄적 EPA 기본방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은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 일본은 최근까지 자국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원활화 및 상호경제관계 강화를 중시
- ☞ 그러나 최근 일본의 EPA 정책기조 변하면서 한국의 FTA과 매우 유사해 짐.

일본측

- 경제적 측면: 일본 농수산업계의 반대
- 제도적 측면: 4省(외무/재무/농림수산/경제산업) 공동의 FTA 협상체제
 - 4省간의 이해가 대립될 경우 조정이 곤란
- 정치외교적 측면: 역내유일의 선진경제강국 일본, 그러나 외교력은 미약
 - 역내 리더십 발휘에 한국협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에 발이 묶임.
 - 한일간 역사마찰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저해하는 상황 방치
- 인식적 측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을 과소평가 혹은 간과
 - 한국 제조업계의 설득이 곤란한 한국 정부의 산업기술협력 요구에 소극적

한국측

- 한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
 - 2007년: 한중FTA 선호도 높은 가운데 대기업 51%, 중소기업 40%가 'KJFTA 유리' 인식
 - 2008년: 중소기업은 한중FTA 우려, KJFTA에 대해 기대도 우려도 미미(단, 경쟁기업 제외)
 - 2010년: 83.9%의 높은 KJFTA 찬성율에 대한 해석 유의
 - 단, 한국시장에서 경쟁관계인 기업은 중국에 비해 일본과의 향후 경쟁심화 우려
- 한미 FTA 및 한-EU FTA 체결이후 높은 수준의 FTA에 대한 민감도 저하(내성 혹은 체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주요 기업의 국제 경쟁력 증대,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
 - 단, 한국산 소비재의 일본시장 지위 취약: '막걸리/BB크림/한류' 성공신화의 내면
- 신흥 개도국 시장에서 한일 양국 기업간 활발한 개발협력사례 증가
- 최근 일본의 부품소재 대기업의 대한투자의 배경 주목할 필요
 - 2010년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대한투자액(약 960억 엔)은 대한투자총액의 50% 이상
 - * 한일 FTA 없이도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증대 가능하다는 논리 뒷받침
 - * 장래 한국의 대일수출을 촉진해 대일무역적자 완화할 가능성

한일FTA 인식(2007) : 중소기업의 우려 높은 수준

FTA가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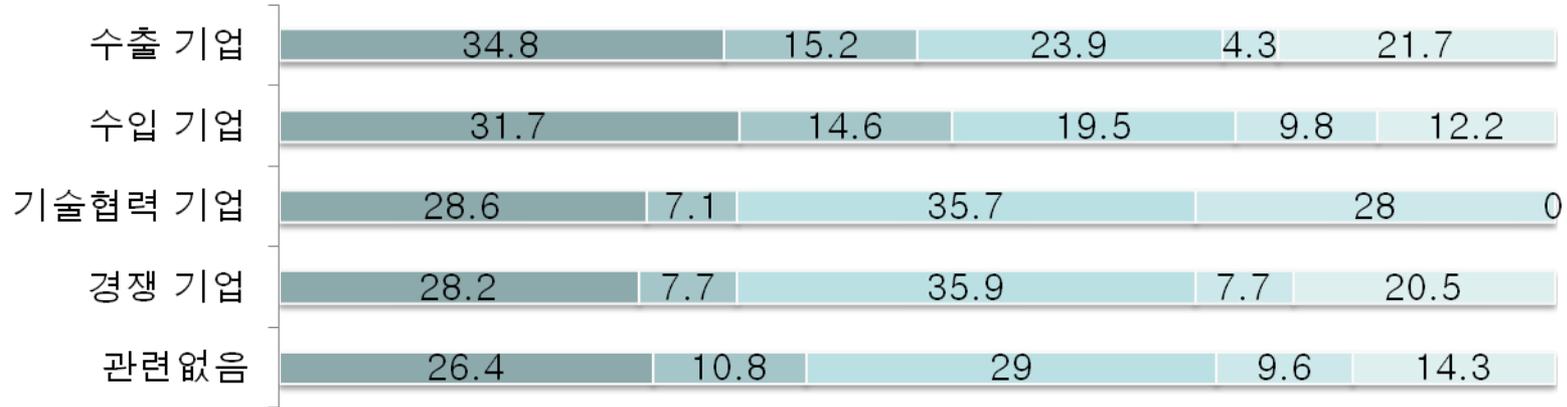
		매우 유리	다소 유리	다소 불리	매우 불리	합계
한·일 FTA	전체	2.3	42.2	51.7	3.8	100
	대기업	3.7	47.6	45.9	2.8	100
	중소기업	1.3	38.2	55.9	4.6	100
한·중 FTA	전체	6.6	57.8	29.0	6.6	100
	대기업	5.7	63.2	23.6	7.5	100
	중소기업	7.2	54.2	32.7	5.9	100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07),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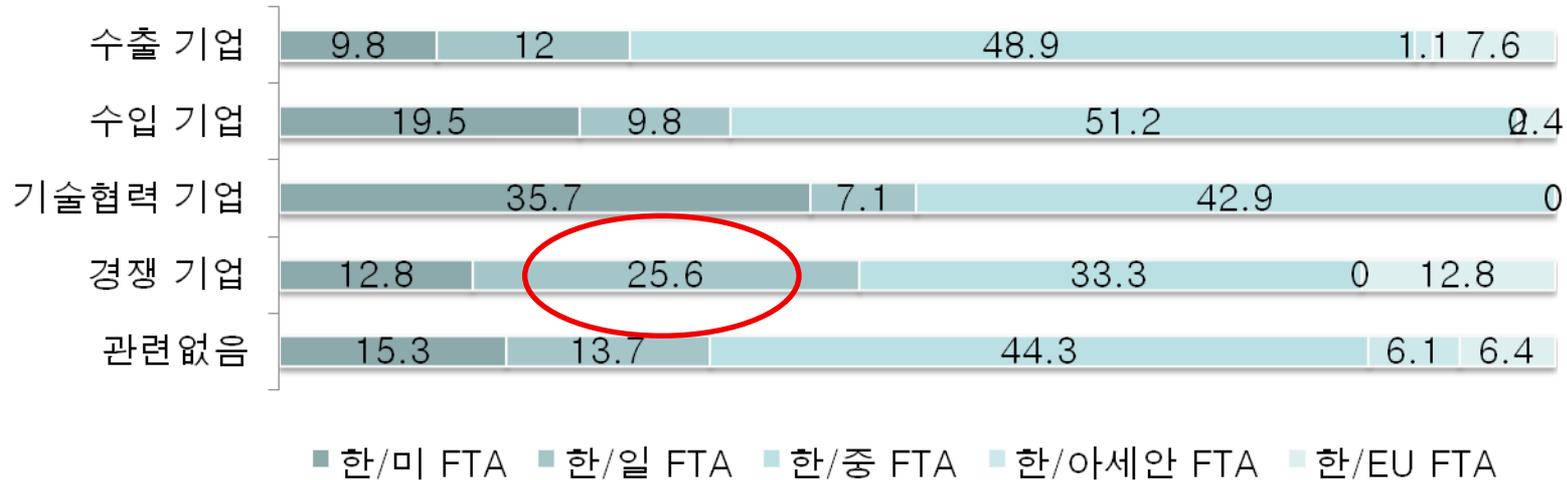
단, 동 조사에서 한국기업은 미국, EU 이후 FTA 추진국으로 중국을 압도적으로 높은 64.3% 꼽은 반면, 일본은 불과 11.5%만 선정했음에 유의

한일FTA 인식(2008): 중소기업이 일본보다 중국 우려

사업현황별 긍정적 영향 예상되는 FTA: KJFTA에 대한 기대감 미약



사업현황별 부정적 영향 예상되는 FTA: 경쟁기업 제외, KJFTA 우려감도 미미



한·일 FTA 및 한·중 FTA에 대한 손익 전망 및 찬반

(단위: %)	사례수	손익 전망				찬반		
		이득이 크다	손해가 크다	이득/손해 대등하다	아무 영향 없다	찬성	반대	무응답
한·일 FTA	(3000)	19.7	11.1	25.2	43.7	68.1	26.8	5.2
대일수출업체	(610)	37.4	7.6	29.9	25.2	83.9	11.4	4.6
대일수입업체	(352)	39.9	9.3	31.3	19.6	82.2	15.6	2.2
대일무역없음	(2226)	13.4	12.2	23.7	50.4	63.0	31.5	5.5
한·중 FTA	(3000)	19.2	24.6	26.1	30.1	58.8	36.8	4.4
대중수출업체	(669)	37.4	12.2	30.8	19.6	75.4	21.1	3.5
대중수입업체	(580)	33.7	14.1	34.8	17.3	75.2	23.7	1.1
대중무역없음	(2043)	12.0	29.8	23.2	34.9	51.6	43.2	5.2

자료: 조성대 외 (2010), 『한·일, 한·중 FTA에 대한 제조기업 의견조사 결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KJFTA의 높은 찬성률은 응답수의 74%를 점하는 ‘대일무역부재 기업’의 높은 찬성률에 주 요인
 - 대일수출입 업체도 KJFTA 체결시 손해보다 이득이 크거나 이득/손해가 대등해 찬성률이 압도적
- ☞ 과거에 비해 일본에 대한 우려가 중국에 대한 우려보다 약화되는 현상 부각됨.

한일FTA 인식(2010): 고른 찬성률, 경쟁심화 전망

(Base=대일무역 없는 기업, N=2,226, %)



자료: 조성대 외 (2010), 『한·일, 한·중 FTA에 대한 제조기업 의견조사 결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중FTA 인식(2010): 업종별편차, 경쟁약화 전망

(Base=대중무역 없는 기업, N=2,043, %)



자료: 조성대 외 (2010), 『한·일, 한·중 FTA에 대한 제조기업 의견조사 결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일 FTA vs 한·중 FTA - 최근 설문조사 종합

	조사 결과					조사 대상/항목
	중소기업(매우 유리 + 유리)		대기업(매우 유리 + 유리)			
2007년	39.5		51.3			- 제조기업 - 유리 여부
한일 FTA	39.5		51.3			
한중 FTA	61.4		68.9			
2008년	수출기업	수입기업	기술협력	경쟁기업	관련 없음	- 제조중소기업 - 긍정성 여부
한일 FTA	15.2	14.6	7.1	7.7	10.8	
한중 FTA	23.9	19.5	35.7	35.9	29.0	
2010년	수출기업		수입기업	무역 없음		- 제조기업 - 찬반 여부
한일 FTA	83.9		82.2	63.0		
한중 FTA	75.4		75.2	51.6		

- 2010년 조사 시점에서 KJFTA에 대한 높은 찬성율은 2007년에 비해 민감도가 저하했음을 시사
 - 2008년 조사 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 대일경쟁기업의 입장 파악과 대응 필요
- ☞ 경쟁관계의 동태적 고찰: 한일경쟁 < 한중경쟁(현재) → 한일경쟁 > 한중경쟁(미래)

일본 우수 소재기업의 최근 한국투자 사례

	입지	투자 규모	기타	사업개요
아사히 카세이 (旭化成)	울산	200억엔 (연간 55만 톤 생산)	2013. 1. 가동	- 아시아 가전수요 증대 겨냥, 한국을 생산거점화하여 글로벌 영업 강화 • 주 고객이 많고 수출에 적합한 한국을 중핵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 • LCD TV 등 가전, 자동차에 사용되는 아크릴계수지원료 아크릴로니트릴(AN) 한국생산을 2013년부터 80% 증산, 증설시 한국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
토오레 (東レ)	경북 구미	630억원 공장신설 총3000억원	2013. 1. 가동개시	- 한국을 산업용 탄소섬유의 핵심 제조거점으로 삼고,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개척(2020년에 구미공장이 세계최대 탄소섬유 생산기지화) • 한국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조선) 등 세계적 기업의 수요 존재 • 도레이의 탄소섬유 `도레이카'의 생산공장 신설, 광학용 및 이형용 폴리에스터 필름 증설에 1500억원, 디스플레이용 IT소재에 500억원 등 총 3000억원투자

양국의 강점을 융합한 기업협력사례 증대

제3국에서의 한·일기업간 주요 협력 사례(인프라, 플랜트 분야)

일본기업	한국기업	기타	장소	규모	합의 시점	기타	사업개요
스미토모상사	한국자원공사	Sherritt(캐나다) SNC-Lavalin (캐나다)	마다가스카르	약 \$37억 (투자총액)	2006년 10월 체제구축	2010년 생산 개시	【공동사업】 니켈 광산 개발, 정련.
미쓰이물산	현대건설	Fisia Italmimpianti (이탈리아)	쿠웨이트	약 \$1,300백 만 Kuwait Dinar	2007년 6월	2010년 7월 납입 완료	【수주】 쿠웨이트 정부가 슈아이바노스 복합화력발전·조수설비건설계약의 발주 내시.
마루베니	한국중부발전 삼탄(구,삼척탄 좌개발)	PT. Tripatra Engine ers and Constructor s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약 \$7억 5천 만 (총 사업비)	2007년 8월	2011년 8월 상사운전개시	【수주】 자바섬 서부에서 발전설비를 신규건설·소유·운영하고, 전력을 30년에 걸쳐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에 공급하는 사업권 획득. ※ 보도발표
미쓰이물산	GS건설	—	이집트	약 \$18억 (수주액)	2007년 8월	2015년 7월 설비완공예정	【수주】 Egyptian Refining Company가 카이로 교외에서 이집트 국내의 기존 제유소에서 생산되는 잔재중유를 원료로 하는 중유정제사업을 위한 설비건설을 일괄 청부방식으로 수주.
이토추상사	SK가스	—	—	—	2007년 9월 MOU 체결	—	【포괄제휴】 액화석유가스(LPG)사업에서 포괄제휴. 양자가 취급하는 LPG의 상호용통과 유조선(tanker)의 공동운항, 중국 등지에서의 신규시장 공동개척에 합의.
스미토모상사	현대로템	—	튀니지	약 165억 엔 (계약액)	2008년 1월	2009년 이후 순차납입	【수주】 튀니지 국철 신형 통근전차 76량 계약 체결.
미쓰이물산	한국가스공사 삼성물산	—	멕시코	약 \$9억 (총 사업비)	2008년 3월	—	【수주】 만사니요(Manzanillo)가 LNG 터미널 운영사업권 발주 내시. 3사가 설립하는 사업회사가 LNG 저장·재가스화 설비를 건설·보유하고, 20년에 걸쳐 멕시코 전력청에 가스 공급 실시.
소지쯔	현대로템	—	미국	190억 엔 (수주액)	2008년 5월	—	【수주】 메사추세츠항만교통공단(MBTA)에서 신형 2층 철도차량(객차) 75량 수주. 75량 추가 옵션 계약.
이토추 상사 철강 대기업 5사	POSCO	—	브라질	약 \$22억	2008년 10월 기본합의	—	【공동출자】 브라질의 철광석 생산·판매회사인 Nacional Minerious S.A사의 주식 40% 취득.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전기	현대로템	BEML (인도)	인도	약 335억 엔 (수주액)	2009년 5월	—	【수주】 벵갈 메트로용 차량 150량 계약 조인

제3국에서의 한·일기업간 주요 협력 사례(인프라, 플랜트 분야) <계속>

일본 기업	한국 기업	기타	장소	규모	합의 시점	기타	사업개요
이토추 상사 ITOCHU International Inc.	STX Pan Ocean (America), Inc	Bunge North America (미국)	미국	약 \$2억 (총 사업비)	2009년 6월	2011년 가을 가동 개시	【공동사업】 워싱턴주 롱뷰에 미 서해안 최대급 곡물 수출터미널 신설 합의.
미쓰비시 상사	한국가스공사	Gazprom (러시아)	러시아	-	2009년 7월 보도	-	【제휴】 한국가스공사가 러시아 Gazprom과 합의한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LNG사업에 협력
미쓰비시 상사	한국가스공사	-	캐나다, 호주 등	-	2009년 7월 보도	-	【제휴】 캐나다와 호주에 매장된 석탄층 메탄 (coalbed methane)과 셰일 가스(shale gas)의 공동 개발 권 취득 및 가스의 한국·일본으로의 수출 등에서 제휴
미쓰비시 상사	한국가스공사	Pertamina (인도네시아) Medc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약 \$28억 규모 (사업 총액)	2011년 1월 조인(2014년부터 연간 200만톤 생산)	-	【제휴】 미쓰비시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LNG 개발 프로젝트(Donggi-Senoro 프로젝트)에 한국가스공사가 25% 지분투자하기로 결정
스미토모 상사	한국전력공사	-	아랍에미리트 (UAE)	약 1,500억 엔 (총사업비)	2010년 10월	2013년 운전 개시	【우선교섭권획득】 아부다비 정부가 실시한 대형발전소의 건설·운영의 입찰에서 우선교섭권 획득
이토추 상사 스미토모 상사 마루베니 소지프	한국광물공사	국영 러시아 철도	몽골	-	2011년 1월 입찰	-	【공동입찰】 세계 최대급인 타방톨고이(Tavantolgoi) 탄광 개발권 입찰에 공동 참여 검토
소지프	한국중부전력	United Africa Group (나미비아)	나미비아	약 120억 엔 (총 사업비)	2011년 1월 보도	2013년 운전 개시	【공동사업】 나미비아에서 최초의 풍력발전소 건설
소지프	현대자동차	-	베네수엘라 (P),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푸에르토리코, 태국 등	-	2007년부터 협력 개시	-	【한국제품판매】 현대자동차의 수입·조립·판매, 부품수출 등

일본측

- 정치적 리더십 약화와 그로 인한 정국 혼란 지속
 - 민주당 집권 이후 두 번째 총리도 저조한 지지율로 사임 가능성 존재
- 높아진 수출 의존도
 - 2002년 이후 수출의존적 경제체질 고착화, 그로 인한 FTA 필요성 증대
- 일본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력격차 축소 조짐
 -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경쟁력, 생산성 측면에서 한일격차 축소
- 平成開國을 표방하는 새로운 EPA 기본방침 수립됐으나 추진 여부는 불투명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 강력한 국내 개혁 의지 표명: 6월에 농업개혁 기본방침 마련 예정
 - TPP 참가 논란으로 표출된 대외정책의 혼선: 동아시아공동체 vs 일미동맹 강화

3. 협상중단 이후 양국 환경 변화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 격차 추이

	한국(A)		일본(B)		(B) / (A)	
	2000	2009	2000	2009	2000	2009
수출상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	2.7	2.9	7.4	4.7	2.7	1.6
무역 규모 (억 달러)	3327	6866	8588	11315	2.6	1.6
특허 출원 수 (건) 1)	56510	114195	365335	332906	6.5	2.9
R&D 지출규모당 특허 출원 건수 (%) 2)	4.27	3.70	3.60	2.48	0.8	0.7
기술무역수지 비율 (기술 수출 / 기술 수입) 3)	0.34	0.43	3.12	3.49	9.2	8.1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율 (%) 4)	29.56	33.45	26.25	18.97	0.9	0.6
제조업의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 (%) 5)	—	45.3	—	49.3	—	1.1
제조업 생산성 (명목환율, US 달러) 6)	31726	56217	82781	83759	2.6	1.5
제조업 R&D 지출의 GDP 비율 (%) 7)	1.4	2.2	2.0	2.4	1.4	1.1

자료: 기획재정부(2010) 2010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주: 1) 2009년란에 있는 수치는 2006년.

2) 2009년란에 있는 수치는 2007년.

3) 2000년란에 있는 수치는 2004년, 2009년란에 있는 수치는 2007년.

4) 2000년란에 있는 수치는 2001년, 2009년란에 있는 수치는 2007년.

5) 2009년란에 있는 수치는 한국은 2006년, 일본은 2007년. 양자 모두 250명 미만 기업.

6) 2009년란에 있는 수치는 2006년.

환태평양파트너십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개요

-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계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4) 발효
 -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가 P4 발효, APEC회원국에 추가참여 요망
- TPP는 P4의 확대판으로서 최종적으로 APEC의 FTAAP(환태평양자유무역지대) 지향
 - 2006년 미국은 APEC의 한 축인 동아시아에서 자국이 배제된 채 FTA 체결이 가속화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FTAAP 제창
 - 2008년 미국 부시 정부가 FTAAP 실현을 위한 단기적 방편으로 TPP에 전면 참가 결정
 - 2010년 10월, 현재 9개국이 협상 진행중 (P4 +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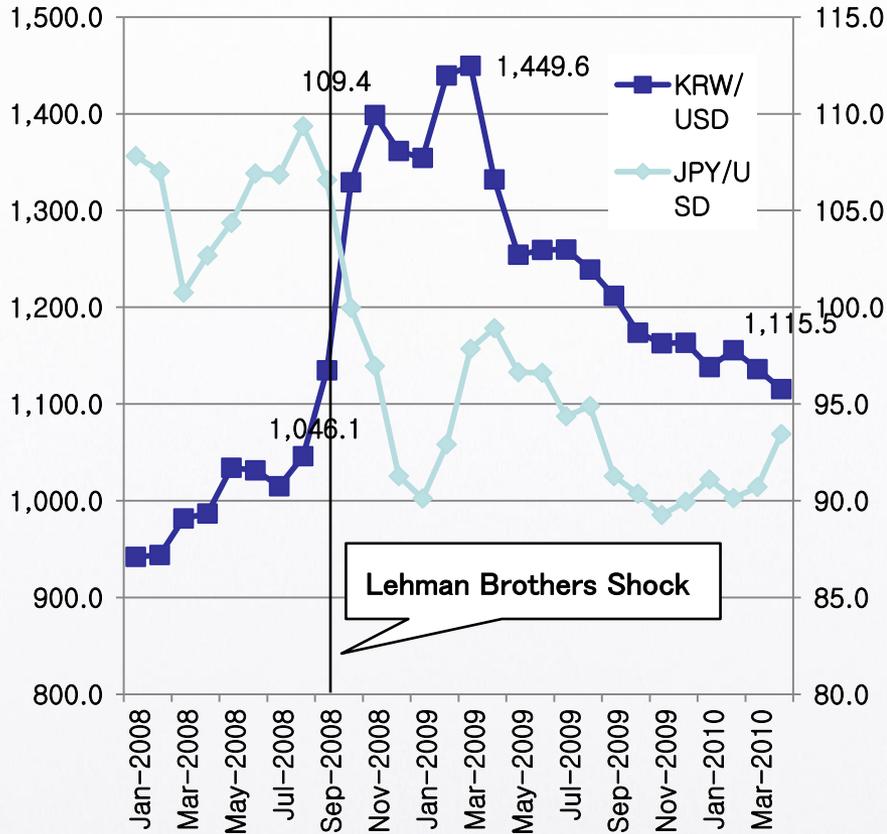
자료: 김양희 (2010),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일본의 「포괄적 EPA 기본방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국 공통 -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사점

-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역외 미국의 금융부문
- 그럼에도 동아시아 역내 주요국의 실물경제부문이 지대한 타격 받음.
- 이는 동아시아 주요국의 역외시장 의존도가 높아 역외국의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환율 변동성을 제어하기 곤란하기 때문임.
- 이에 동아시아는 환율 변동성 제어와 역내시장 통합을 통한 역외시장 의존도 저하의 필요성 절감
- 높은 수출 의존도와 환율변동 성에의 노출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이 특히 컸던 한국과 일본이 그 필요성을 크게 느껴 이를 위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 실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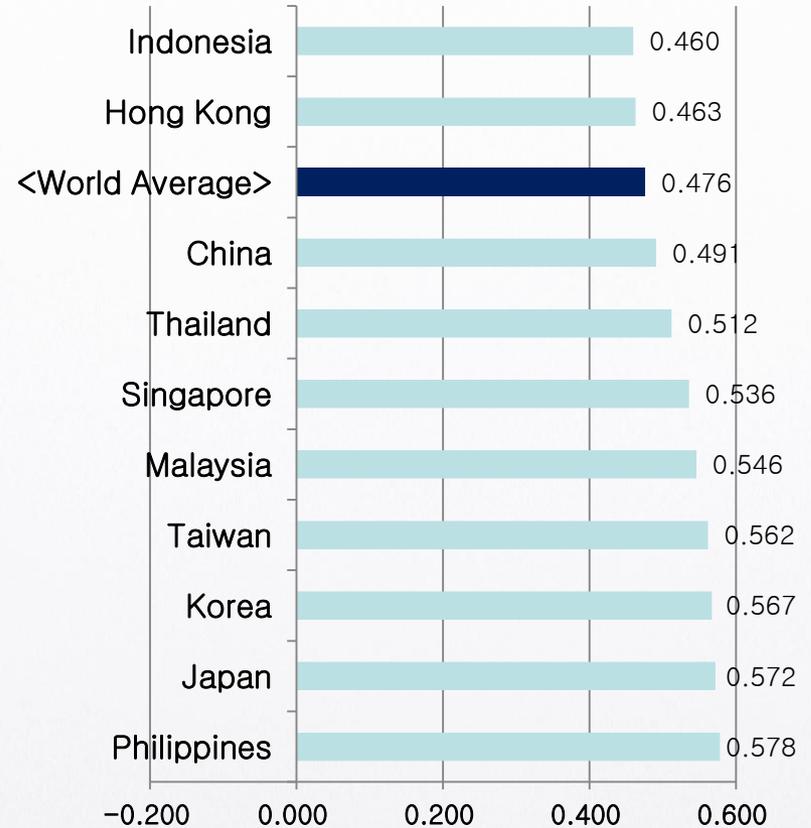
극심한 환율변동과 역외의존성이 양국경제 타격

리먼 브라더스 쇼크 전후 달러대비 원·엔 환율 추이



자료: CEIC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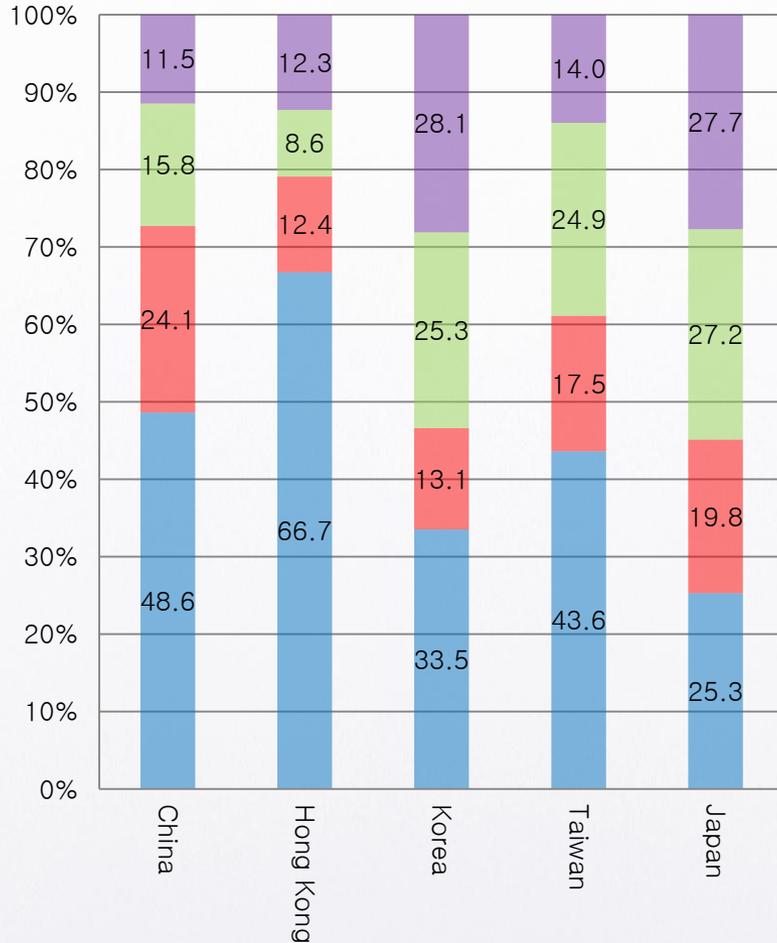
각국 지역의 수출과 세계경기의 연동성 지표



자료: みずほ総合研究所(2009), 『世界金融危機とアジア経済』

동아시아 주요국 수입의 지역별 분포 추이

수입의 지역별 분포 (1990년)



수입의 지역별 분포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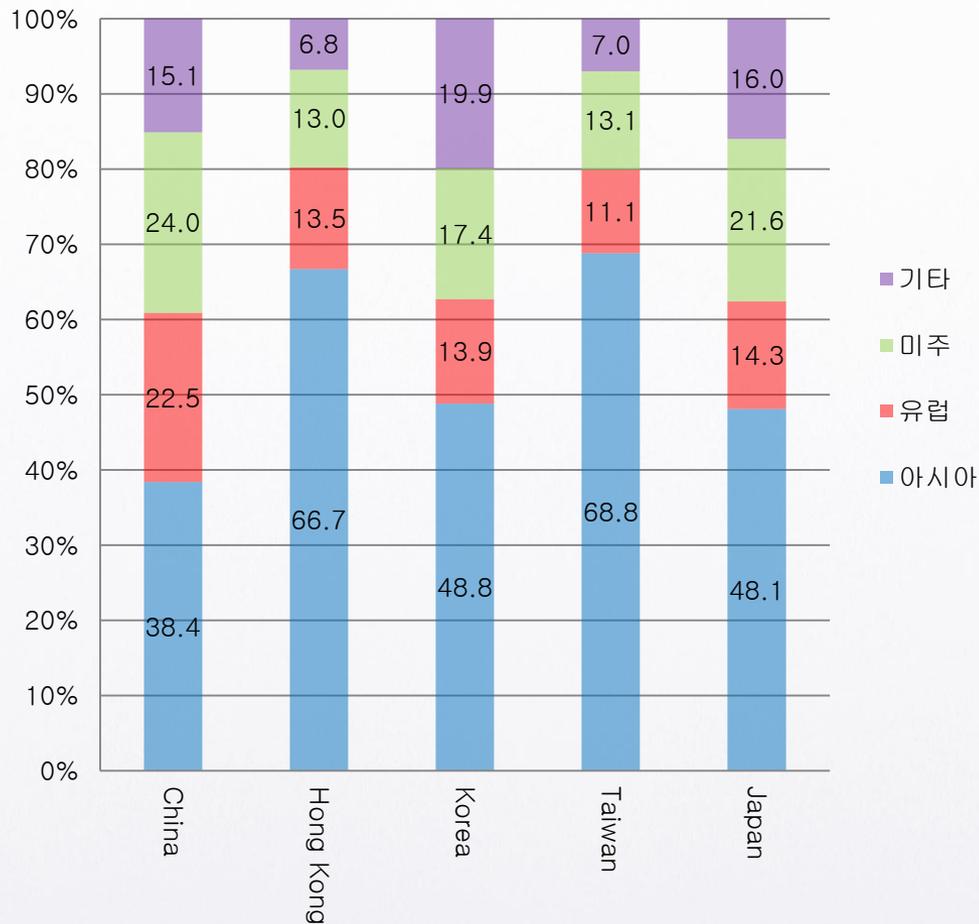
동아시아교역 특성: 주요국의 역내수출 증가(중국 예외)

동아시아 주요국 수출의 지역별 분포 추이

수출의 지역별 분포 (1990년)



수출의 지역별 분포 (2009년)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2010),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간 수출 MATRIX(2008)

(단위 : 백만불, %)

기준국	JAPAN	HONG KONG	INDONESIA	KORE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CHINA	OTHER	WORLD	역내 수출
JAPAN	-	40,287	12,609	59,426	16,439	9,975	26,631	29,495	7,825	124,969	455,203	782,859	41.9
HONG KONG	15,556	-	2,181	6,372	3,491	2,716	7,116	4,058	2,766	176,061	142,670	362,987	60.7
INDONESIA	27,744	1,809	-	9,117	6,433	2,054	12,862	3,661	1,673	11,637	60,032	137,022	56.2
KOREA	28,253	19,772	7,934	-	5,794	5,016	16,293	5,779	7,805	91,389	238,728	426,763	44.1
MALAYSIA	21,466	8,530	6,243	7,800	-	2,932	29,416	9,571	2,438	19,049	92,065	199,510	53.9
PHILIPPINES	7,707	4,987	603	2,523	1,958	-	2,607	1,509	385	5,469	21,400	49,148	56.5
SINGAPORE	16,710	35,098	35,747	12,291	40,912	7,297	-	13,193	8,744	31,125	138,297	339,414	59.3
THAILAND	19,724	9,774	6,138	3,568	9,717	3,288	9,844	-	4,962	15,976	90,244	173,235	47.9
VIETNAM	8,538	877	793	1,784	1,955	1,825	2,660	1,349	-	4,536	38,368	62,685	38.8
CHINA	116,176	190,772	17,214	73,905	21,383	9,088	32,325	15,521	15,139	-	937,817	1,429,340	34.4
OTHER	420,235	115,678	43,449	226,729	55,849	31,124	136,755	71,477	22,474	515,390	-	12,068,336	
WORLD	682,107	427,584	132,910	403,514	163,932	75,316	276,509	155,613	74,210	995,600	12,644,005	16,031,300	

자료: IMF

협력 파트너 일본의 중요성 재인식

- 경제적 측면

- 수출시장으로서 일본의 매력 주목: 역내 최고급 소비재 시장이자 거대시장
- 높은 지재권 보호수준: 상업적 이익 창출 용이 (예: 한류)
- 독특한 상관행: 고객과의 신뢰 구축시 장기거래가 용이
- 핵심 중간재의 전 세계적공급기지로서 이들의 수입가격 하락 시 혜택 향유

- 비경제적 측면

- 가치의 공유: OECD 회원국(시장경제체제, 자유주의), 성숙된 시민사회, 다원화 존중
- 현안의 공유: 대외의존적 체질, 저출산고령화, 취약한 농업경쟁력, 고용불안 등

한국측

- 제조업계의 지지기반 확보가 최대 관건
 - 향후 한일간 경쟁심화를 우려하는 기업의 불안감 해소 및 자신감 부여
 - 중소기업의 대일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역내외에서 상호 강점을 활용하여 Win-Win이 되는 한일기업간 협력 확대
- FTA 이행기반의 착실한 구축으로 FTA 실익 최대화, 피해 최소화
 - 원산지규정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실질적인 FTA 활용 촉진
 - 국내대책과 산업구조조정의 유기적 연계: 거대 경제권과의 FTA의 부작용 최소화
 - 여전히 취약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법제도의 투명성 증대
 - 외국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꾸준한 해소와 동시에 열린 사고 지향
- 한국의 FTA 정책기조의 전환 필요성 검토
 -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구분되는 역내시장 통합형 FTA 추진 필요
 - 한일 FTA 또한 제3국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는 FTA 상대로 재인식
-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의제 등에서 창의적인 한일 FTA 구상

일본측

- 농수산업계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 호별소득보상제 도입 등 6월까지 수립예정인 농업개혁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
- 전략적 협력 파트너 한국의 재발견
 - 농업에서 한일 양국은 진검승부를 겨룰 수 있는 상대자
 - 한국의 경쟁력 강화는 양국의 강점을 적극 활용한 기업간 협력 기회의 확대를 의미
- 정치적 리더십 발휘로 동아시아의 SOFT POWER 강국으로 재도약
 - 명실상부한 정치주도의 국내 이해관계조정 메커니즘 구축
 - 한일간 역사마찰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 장기적으로 역내통합에 기여하는 EPA 정책 추진
 - 일본이 비관세장벽 해소를 역내국 제품의 흡수처가 되어 역내 경제통합 촉진
 - 한일 FTA 이후 역내통합의 청사진 제시
 - TPP 참가가 일본의 역내 리더십 발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아야 함.
-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의제 등에서 창의적인 한일 FTA 구상

감사합니다